

■ 광주시-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광주도시철도공사 9급 한명도 없다

무분별 승진 재정악화 부추겨

광주도시철도공사에 9급 직원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신규 채용이 없어진데다 자동 승진제도에 따라 9급 직원이 모두 8급으로 승진해왔다. 이 때문에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때아닌 '승진잔치' 논란이 벌어졌다.

광주시의회 조오섭(민·북구 2) 의

원은 17일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철도공사 정원 566명 가운데 9급 정원이 45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며 "만성적으로 경영합리화를 꾀해야 할 공사가 자기들만의 승진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에 퇴임한 전

년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에 승진요인 발생시 50%만 승진시키는 제한 승진 제도를 두고도 지난 2007년 30.5%(100명), 2008년 55.7%(214명), 2009년 59.5%(128명), 2010년 67.5%(52명), 2011년 46.7%(57명)를 승진시키는 등 내부 인사규정을 무시한 무분별한 승진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에 퇴임한 전 임 사장이 후임사장에 맡겨야 하는

인사를 지난 8월 대규모(10%·56명)로 단행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인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공사는 "제한 승진 비율은 승진 인사 사시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50%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며 "9급 현원이 없는 것은 자동승진제도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F1 외국인 관람객 1만명 겨우 넘겼다

대회관계자 2000명 포함 1만900명

올 F1(포뮬러1) 코리아 그랑프리를 관람하기 위해 전남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8900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회관계자 2000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1만900명의 외국인 관람객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대회조직위원회가 16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F1 대회 기간(10월14일~16일) 중 전남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모두 1만900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수치로만 보면 조직위원회 애초 목표인 '외국 관람객 1만명 유치'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직위가 추산한 외국 방문객(1만900명)은 대회 관계자 2000여명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하면 순수한 외국 관람객은 8900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조직위는 올 해 외국인 관람객 유치 목표를 지난 대회(2만명)보다 1만명 낮춰 잡았다.

이각에서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

사 주관으로 차별화된 40개 여행상품을 만들어 관람객을 모집했고 국제박람회·이벤트에 참가해 대회 홍보를 추진하거나 8차에 걸쳐 해외여행사 대상인 팸투어 등 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에 비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의회는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한 마케팅 능력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재원없는 지자체, 살길은 결국 사람”

서삼석 무안군수 내일 '열정은...' 출판기념회

서삼석 무안군수가 자신의 자서전적 이야기를 담은 '열정은 태산을 넘는다' 출판기념회를 19일 오후 무안종합스포츠타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연다. 서 군수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성장과정과 가족 이야기, 도의원 의정활동과 군수 재직시 활동을 담담히 글로 풀어 썼다.



책을 읽는다면. ▲육도 먹고, 비단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켰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많은 단체장이 이권 등으로 금전적 시비에 휘말렸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청렴했다고 하면 낮 부끄럽지만,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중국 정부를 통해 자본을 유치했다. 한반도 작은 시골 자치단체가 중국 정부를 상대하면서 향후 펼쳐질 서남해안 시대, 무안군의 네임밸류를 크게 향상시켰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였다.

-이번 출판기념회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인가.

▲내년 총선이야기는 지금 하고 싶지 않다. 우선 사퇴 전까지는 군수직에 전념할 것이다. 군수직을 사퇴한 뒤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공식적으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총선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민선 10년 군수를 지냈다. 성과

민국, 재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상황에서 살아나갈 방법은 결국은 사람이다. 특히 지도자는 열정을 가져야만 그러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야만 그런 열정을 공직자들에게 주문할 수 있다.

-자서전 출판 이유는.

▲전남도의원 재선과 군수 3선을 통해 민선 10년 군수를 이끌어 왔다. 짧은 열정만 갖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다. 민선 10년을 돌아보기 위해 책을 집필하게 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열정을 모아 보태달라는 주문을 이 책을 통해 했다.

17일 오전 전남여고 대강당에서 열린 '제72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300여명의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태극기 흔들며 만세삼창

17일 오전 전남여고 대강당에서 열린 '제72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300여명의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송영길 인천시장 "FTA, 여야합의 처리해야"

송영길 인천시장은 17일 여야가 대치중인 한미 FTA와 관련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풀려야 할 과제인 만큼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또 5·18 민주화운동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삭제에 반발하는 광주시의 입장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송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FTA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지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했던 협상으로,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보완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송 시장은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 시작했던 협상을 이계와 몰랐다고 한

다면 무책임한 정치"라며 "(민주당은) FTA를 안 하려고 핑계를 찾거나 다른 조건을 거는 방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또 5·18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삭제에 반대하는 "5·18 정신은 교과서에 반드시 기술돼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강운태 광주시장이 5.18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삭제 철회 운동을 전개하는 데 대해 인천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광주·전남 10명 국감 우수의원에

민주당 김홍석·이낙연·박주선·박지원·최인기·주승용·김재균·이용섭·장병완·조영택 의원 등 10명의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이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연대 구성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11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13년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발표, 시상해 온 NGO국정감사 모니터단은 1000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 평가위원들로 구성된 온·오프라인에서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하고 평가해오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열린다.

이낙연, 한국전쟁 희생자 보상법 발의

민주당 이낙연 의원(함평·영광·장성)은 17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명예회복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지원과 이를 위한 성공모

금, 재원마련 등의 업무를 하게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선행보 김정길 20일 무등산 산행

지난 6월 광주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선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는 20일 무등산 산행사를 연다.

김 전 장관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증심사 입구 문빈정사 앞에서 출발하는 무등산 산행에는 1000여명의 시민과 지지자들이 참가, 민주개혁세력의 정권교체 의지와 광주가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결의를 다짐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rt road project 2011 2011 공동예술제

예술의 길에서는 누구나 예술가

11. 19(토)~11. 20(일) 오후 1:00~7:00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일원

예술의 거리 상인들과 시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하는 2011 아트로드프로젝트 늦가을, 우리의 예술적 감성을 깨우는 자리가 될 「2011 공동예술제」의 열정을 초대합니다.

특별기획

- 책+나눔 축제
나인갤러리 1, 2층과 주변
- 백발에 그려보는 친정엄마전
메타미술학원 1층 갤러리
- 아시아 in 광주
가야미공방 1층
- 길 따라 예술 따라 "아트투어"
담양 가사문화권과 예술의 거리 일원
- 예술로 기부한다! "명사경매 콘서트"
예술의 거리 중앙무대

상설 프로그램

- 가야미공방 오픈 스튜디오
권승찬, 송남규, 인준교, 김광철 작가
- 나나노 라디오방송
나도라디오 PD / 거리 DJ
- 야외경매, 공동품감정
- 부녀회 전통음식 체험
- 문화예술체험/교육
예술여지도,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 아트마켓 + 재미시장

주최: 광주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광주문화재단, 주관: 아트로드프로젝트, 후원: 광주시민회, 광주광역시동구, 문의: 2011아트로드프로젝트 (Tel. 062-224-0900)